

‘유쾌·발랄’ 쥬크박스 오페라

광주전남예술인종합협회
‘오페라 너의 MBTI는 뭐니?’
다음달 1일 서빛마루문화회관
MBTI+여행 계획+음악극
모차르트·베르디 등 작품 감상



내향적인 I유형이 인형을 만드는 '인형의 노래' 대목. (광주전남예술인종합협회 제공)

MZ세대는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류와 맞물려 개인의 성향을 규명하는 'MBTI'는 젊은 세대에 각광받아 여행, 라이프, 생활 등의 분야에서 파생 콘텐츠로 장·제작되고 있다.

광주전남예술인종합협회(이하 예술인협회)는 '오페라 너의 MBTI는 뭐니?'를 다음 달 1일(오후 7시 30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연다. 예술인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유형을 16가지로 판단하는 MBTI에 여행계획을 구성하는 극과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쥬크박스 오페라 형태'를 표방하는 공연이다.

코로나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2023년, 대한민국에 해외여행 유행이 일어 여행객의 수가 폭증한다. 주인공들도 해외로 떠나기 위해 분주하다. 그런데 인물별로 여행을 준비하는 태도부터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MBTI의 'J(판단, Judging) 유형'부터 즉흥적인 'P(인식, Perceiving) 유형'까지, 천양지차의 성향은 저마다 다른 여행계획을 수립하게 만든다.

작품의 시놉시스는 실제로 여행을 준비할 때 우리의 모습과 공연을 겹쳐보게 한다. 그러면서 음악·영상·극을 교차 상연하는 형식은 흥미를 끈다.

먼저 오스트리아 음악가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의 곡을 만나볼 수 있다. 오페라 '마술피리' 중 '나는 새집이'와 '그대, 창가로 오라(오페라 돈 지오

바니)'를 바리톤 김치영이 들려준다.

오페라 '파우스트'로 명성을 떨친 프랑스의 작곡가 샤를 구노의 음악도 울려 퍼진다. 불후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1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는 줄리엣의 생일 축하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진 황홀경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이어 낭만의 도시 이탈리아가 음악에 실린다. 이탈리아 작곡가 루이지 덴자가 작곡한 '푸니쿨라 푸니쿨라'의 선율을 음악극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작품은 당시에는 절도(이탈리아어로 푸니쿨라)를 홍보하기 위한 CM송으로 만들어졌지만, 3대 테너로 불리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이 선보이면서 현대 관객에게도 익숙하다. 소프라노 박혜경과 임지연, 테너에 김병진 등.

또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곡 '내가 길을 걸을 때면(오페라 라보엠)'은 소프라노 장마리아

가 들려주며, 베르디의 '오 내 사랑 파리를 떠나서(오페라 라트라비아타)'도 울려 퍼진다. 아올러 형가리의 작곡가 레하르의 '입술은 침묵하고(오페라 메리 위도)'도 레퍼토리에 있다.

피날레는 전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가 장식한다.

한편 이번 작품은 예술인협회가 출연했던 공연 '여행으로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에 MBTI 소재를 결합해 단막극으로 구성한 것이다. 예술인협회 박혜경 기획자는 "클래식도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MBTI라는 소재를 도입했다"며 "이번 공연의 즐거움이 전 세대에게 전달돼 광주·전남지역 클래식 대중화를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공연 문의 010-6460-2621).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경림 작가 '치유 이야기'

광주트라우마센터, 29일 전일빌딩245서 인문학 강연



11년째 언어치료사이자 상담사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고 있는 김경림 작가. 김 작가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대중들과 공유하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김 작가와 함께 하는 치유의 인문학강연이 열린다.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김명권)는 오는 29일(오후 7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김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을 연다.

김 작가는 '그것이 다시 온 후 : 개인적 트라우마 사회적 회복으로 연결되려면'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 작가는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3세 아이에게 꼭 해주어야 할 49가지', '1~2세 아이에게 꼭 해주어야 할 116가지' 등의 책을 펴냈다. 저자이자 육아잡지 기자로 5년, 11년째 언어치료사이자 상담사로 바쁘게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다. 첫째 아이에게 '중추신경계림프종'이라는 희귀암을 발견하고 완치와 재발을 반복하며 10년 동안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보냈던 것. 그럼에도 작가는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 '엄마

노릇을 배웠다'고 전한다.

광주트라우마센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트라우마센터는 앞으로도 '치유의 인문학'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치유의 인문학 강좌는 이조훈 영화감독이 예정돼 있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트라우마센터 문의.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심 가득 '도깨비그림책문학상' 공모

섬진강장학재단, 이달말까지 접수...전국 어린이 10명이 심사

(재)섬진강장학재단(이사장 김성범)은 '제3회 도깨비그림책문학상'을 공모한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문학상은 전국에서 응모를 통해 위촉받은 10명의 어린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응모작의 출판 시기나 타 문학상과 중복 수상도 관계가 없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응모 방법은 섬진강 장학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섬진강도깨비마을(곡성군 고달면 호곡도깨비길 119-97)로 11권의 책을 보내면 된다.

김성범 재단 이사장은 "도깨비그림책문학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작품을 선정하는 문학상"이라며 "어린이들이 아동문학의 주인공임을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 작

가들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품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앞서 제1회 릴리아 작가의 '초록 거북'을, 제2회 문종훈 작가의 '날고 싶은 키위'를 수상작으로 선정해 바 있다.

도깨비그림책문학상을 재정한 재단 이사장 김성범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의 아동문학가로 지난 2005년 섬진강도깨비마을을 설립해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상작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16일, 출판문화플랫폼의 콘텐츠인 마들렌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시상식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문학상 담당에 전화(010-4895-0351)하면 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매료시킨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임을 위한 행진곡' 등 30곡 선보여

외국인의 목소리로 광주의 오월의 한을 승화하는 합창 공연이 마무리돼서 화제다.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이하 합창단·사진)이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선보인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광주 공연'이 막을 내렸다.

합창단은 '밀양 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 '하숙생' 등 서정적인 우리 민요와 가곡 등 30여 곡의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이동원의 '항수')와 같은 애상적인 가사는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어, 스페인어로 각각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의 오월 참상에 대한 노랫말을 외국인의 목소리에 담아내, 5·18정신의 확장을 모색했다.

임재식 지휘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무대였다"며 스페인어 악보(초고)를 임택 동구청장에게 전했다.

한편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은 스페인의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지휘는 임재식, 피아노는 알렉산드레 알칸다라, 캐스터네츠는 라이안 보르헤스가 맡았으며 광주동구합창단이 특별출연해 자리를 빛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서 문화장터 '누리랑께'

문화재단, 23일, 9월 5·6일 개최...공예·운동용품 등 판매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문화장터 '누리랑께'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8월부터 9월 중 총 3회에 걸쳐 누리랑께를 개최한다.

'누리세요'의 전라도 방언 '누리랑께'란 명칭을 붙여 만든 문화장터는 가맹점이 직접 거주 지역을 찾아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누리랑께는 오는 23일 학운동 행정복지센터 2층(동구 의재로 53), 9월 5일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3층(동구 경양로247번길 7), 9

월 6일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4층(동구 지원로 31-9)에서 열리며 운영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문화장터에서는 공예품, 운동용품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당일 문화누리카드 결제자 중 결제액에 따라 시은품(선착순)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jcfmunhwanuri>)에서 확인 가능.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절판 판매중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